

태양이 머문 초록빛 도시, 프라이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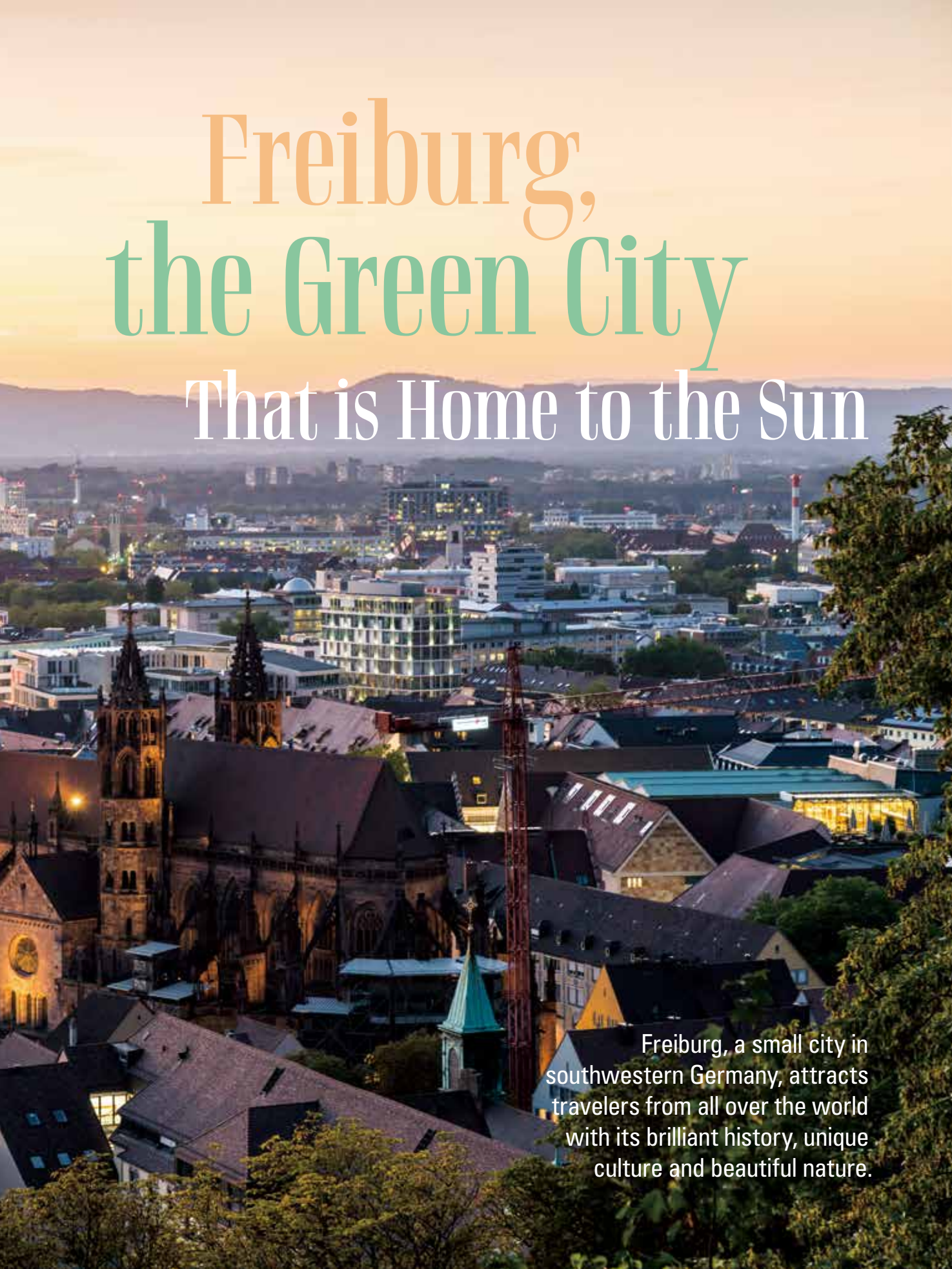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찬란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까지 모두 갖추고 전 세계 여행자들을 불러모은다.

WRITTEN BY DAHEE SEO PHOTOGRAPHY BY BASCHI BENDER



Freiburg, the Green City

That is Home to the Sun

An aerial photograph of Freiburg, Germany, taken from a high vantage point looking down into the city. The foreground is dominated by the dark, steeply pitched roofs of old buildings and the spires of a large Gothic church. In the middle ground, a mix of modern glass-fronted buildings and older structures are visible, some with interior lights glowing. The background shows a hazy horizon under a soft, orange and yellow sky, suggesting sunset or sunrise. The overall atmosphere is peaceful and scenic.

Freiburg, a small city in southwestern Germany, attracts travelers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its brilliant history, unique culture and beautiful nature.

초고속열차 ICE가 프랑크푸르트를 떠난 지 1시간쯤 되었을까. 창밖으로 뻥뻥한 침엽수림이 끝없이 펼쳐진다. 독일어로 '검은 숲'이라는 이름의 슈바르츠발트,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길이 160km, 너비 최대 50km가량 뒤덮고 있는 숲과 산악 지대다. 햇빛이 스며들 틈도 없이 나무가 울창해 검은 숲으로 불린다지만, 그 속살을 파고들면 하늘이 환히 열려 있는 태양의 골짜기가 나타난다. 그곳은 바로 열차의 목적지인 프라이부르크다.

프라이부르크가 지닌 타이틀은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먼저 최남단에 위치해 독일에서 가장 햇빛이 풍부한 도시라는 것. 반짝이는 햇살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향긋한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검은 숲을 품은 프라이부르크는 동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스위스를 연결하는 관문도시이기도 하다. 경이로운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독일의 환경 수도로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여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요즘의 화두이니까.

최근 <론리 플래닛>이 여기에 한 가지 타이틀을 덧붙였다. '부러울 정도로 높은 삶의 질'을 꼽으며 프라이부르크를 2022년 여행해야 할 최고의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인구 23만 명의 작은 도시예요. 베를린, 뮌헨처럼 화려한 도시적 재미도 없고 제2차세계대전 당시 80% 정도 파괴되었던 탓에 근교의 프랑스 소도시와 같은 고풍스러움도 기대할 수 없죠." 프라이부르크 출신 아트디렉터 아네 조이베르트가 말했다. 그녀는 프라이부르크가 복잡한 대도시의 삶에 지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귀띔했다. "프라이부르크의 흔한 하루하루를 옷OOT이 만끽해보세요. 화창한 날씨, 여유롭게 흐르는 시간, 자연과의 교감, 영혼을 채우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요."

찬란한 역사를 따라, 구시가 탐험

중앙역에서 여행의 중심이 되는 구시가까지는 고작 10분 정도 거리다. 구시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리를 따라 졸졸 흐르는 수로 '베힐레'다. 베힐레는 상수와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2세기에 처음 도입된 인공 수로다.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후엔 필요가 없어졌지만, 옛것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시민들은 이를 예쁘게 꾸며 도시의 명물로 남겨놓았다. 덕분에 베힐레는 시민들의 놀이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날엔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까지 한다. 양증맞은 실개천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붉은색 구 시청





- 1_ 중세시대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의 풍경
Freiburg's Old Town retains the aesthetic of medieval Europe.
- 2_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구시가가 펼쳐져 있다.
Different parts of the sprawling Old Town are separated by two streams.
- 3_ 햇살과 초록빛 식물이 한데 어우러진 구시가를 사람들이 거닐고 있다.
Visitors take a stroll through the Old Town, enjoying the sunlight and the greenery.
- 4_ 뾰족한 첨탑을 지닌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의 내부
The interior of the Freiburg Cathedral, which is known for its pointed spire



The name Freiburg sets the traveler's heart aflutter. Located in the southernmost part of the country, Freiburg is Germany's sunniest city. The glittering sunshine enriches the lives of locals and visitors alike. It coaxes fragrant flowers into bloom, produces sweet fruit and keeps both body and mind healthy. Freiburg is a gateway city that connects the Black Forest with France to the east and Switzerland to the south. But the city's gorgeous nature and rich culture are just icing on the proverbial cake. Freiburg's role as Germany's environmental capital is another factor that adds to the attraction.

Lonely Planet recently selected Freiburg as one of the best cities to visit in 2022, citing the "enviably high quality of life." "Freiburg is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230,000," says Anne Seubert, an art director from Freiburg. "You can't expect it to be as colorful as Berlin and Munich, or to have the antique charm of the French towns in the suburbs, because about 80% of the city was destroyed during World War II."

She maintains that Freiburg is a place to seek comfort when life in the big city becomes exhausting.

"I recommend enjoying some ordinary days in Freiburg, taking advantage of the sunny weather, relaxing, communing with nature and eating delicious food," she adds.

Explore the Brilliant History of the Old Town

It is only about 10 minutes from Central Station to our destination in Old Town. What first catch my eye when I enter the Old Town are the Bächle, waterways that flow along the streets. The Bächle are artificial waterways first introduced in the 12th century to supply water and put out fires. They stopped being necessary after a modern system was



구시가에 위치한 와인바 앞에서 햇살을
맞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People bask in the sun while sitting
outside of a wine bar located in
Freiburg's Old Town.





1_ 저녁이 되면 야외 식당이 늘어난 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In the evenings, people in Freiburg flock to alleys lined with outdoor restaurant seating.

2_ 골목을 둘러보다 노천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It's good to take a break from exploring the alleys of Freiburg by sitting outside at one of the city's cafés.



사와 함께 유럽 건축사를 망라하는 시대적 건축물들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것은 프라이부르크의 랜트마크인 대성당이다. 짓는 데만 300년 넘게 걸렸다는 고딕양식의 대성당은 붉은 사암의 매혹적인 빛깔, 정문이며 기둥, 첨탑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각 예술, 성스러운 빛의 하모니를 선사하는 스테인드글라스가 감탄을 연발케 한다. 특히 116m 높이의 첨탑은 종종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첨탑'으로 소개된다. 맞은편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건축물은 상인회관이다. 16세기 초에 지어진 웅장한 르네상스양식의 건물에 '황제의 연회실', '로코코 룸' 등 호화로운 실내까지, 중세시대 교역의 중심지로 변형했던 프라이부르크의 위세를 방증하는 듯하다.

무역을 위해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드나들었을 테니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성벽과 아직 남아 있는 슈바벤 문, 마르틴 문은 모두 1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도시의 출입구 역할을 했다. 그중 네 귀퉁이에 첨탑을 올려 더욱 아름다운 마르틴 문 아래엔 맥도날드가 자리한다. 구석구석에서 과거와 현재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구시가의 모습이 흥미롭다.

맛있는 골목 산책

태양의 도시란 타이틀을 가질 만큼 온화한 기후와 양질의 토양,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지닌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대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른 아침에 대성당 앞 윈스터마르크트로 향할 것. 평일 오전이면 이곳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근교 농가와 목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채소와 과일, 고기, 햄과 치즈 등 지역 먹거리로 가득찬 장이 서기 때문이다. 보통 시내의 광장에서 열리는 야외 시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서기 마련인데, 프라이부르크의 윈스터마르크트는 일요일만 빼고 매일같이 열린다. 주민들은 갓 수확한 산지 직송의 제철 식재료들을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프라이부르크가 미식가를 위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윈스터마르크트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가 있다. 바로 길고 뽕글다는 뜻을 지닌 '랑게 로테' 소시지다. 1949년, 제2차세계대전 후 탄생한 유서 깊은 음식으로, 무려 35cm에 달하는 얇고 길쭉한 소시지를 지글지글 구워 그대로 혹은 반으로 접어 빵에 끼운 후 겨자를 올려 먹는다. 시장 곳곳 7개나 되는 가판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성당 앞 뮌스터마르크트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린다.
Münstermarkt is held in front of the cathedral every morning of the week, except on Sundays.

installed, but the city's residents didn't want to remove them. Thus, they've been maintained as a beautiful decorative installation. The Bächle have not only become playgrounds for the city's residents; they also help lower the temperature of the entire city on hot days.

Along these dainty streams are buildings that showcase European architectural history. The most outstanding of these buildings is the landmark Freiburger Münster (Freiburg Cathedral). This Gothic structure, which took more than 300 years to build, is made of red sandstone, hence its bewitching color. The splendid sculptural art of the main gate, the spire and the stained glass create a harmony of holy light that induces a sense of awe in all who see it.

With so many rich merchants and travelers frequenting Freiburg in days past, the city needed protection. Of the fortifications built for defense, Schwabentor and Martinstor, which were both built in the 13th century to serve as gates to the city, still remain.

A Walk Down a Delicious Alley

A walk through Old Town is even more wonderful when it involves tasty food. Nicknamed City of the Sun, Freiburg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German cities for gourmet fare thanks to its mild climate and high-quality soil. Early in the morning, we head to Münstermarkt, in front of the cathedral. Weekday mornings are always lively here. This is because the market is filled with fresh vegetables, fruits, meats and cheeses brought in from nearby suburban farms and ranches. The outdoor farmers market is usually held in the square downtown once or twice a week, while Freiburg's Münstermarkt is open every day except Sundays. Residents have the privilege of obtaining fresh, seasonal ingredients delivered immediately after harvest. This is why Freiburg has become a destination for gourmands.

One of Münstermarkt's famous delicacies is a sausage dish called Die Lange Rote, which means "long and red." This historic menu item emerged in 1949, not long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t is a thin, 35cm-long sausage

전통 실내 시장 마르크트할레, 라일락을 드리운 콘픽트 거리 등 골목골목마다 숨겨 좋은 레스토랑과 바, 카페 등이 늘어서 있다. 독일식 피자라 불리는 플람쿠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블랙 포레스트 햄, 튀기거나 훈제한 송어 요리, 6월 까지 맛볼 수 있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까지, 프라이부르크에선 아낌없이 먹고, 마시고, 산책하면 된다.

와인의 고장

프라이부르크는 와인으로도 명성이 높다. 독일에서 가장 큰 와인 산지를 품은 도시로 시 자체는 물론이고 대학교조차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 독일 와인 하면 화이트와인, 그중에서도 리슬링을 떠올릴 테지만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가 자랑하는 와인은 좀 다르다. 쇼이레베, 게뮈르츠트라미너, 뮐러 투르가우 등 부드럽고 향긋한 화이트와인과 피노 누아, 도른펠더 등 진한 과실 향의 레드와인을 내세운다. 구시가의 레스토랑이나 와인 바를 찾을 수도 있지만, 와이너리를 직접 찾아 생산자를 만나고 그가 만든 와인을 맛보는 건 더 큰 감동을 준다.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는 도심에서 15~20km 거리에 있는 투니베르크와 카이제르슈툴이다.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 지방 전체 와인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으로 100여 개의 와이너리가 산재해 있다. 이곳이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인정받는 이유를 닥터 헤거 와이너리로 향하는 길에 확인할 수 있다. 눈부신 햇살, 오래전 화산이 만들어낸 언덕과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의 포도밭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카이제르슈툴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밭을 가졌다는 닥터 헤거 와이너리는 세계의 각종 와인 및 미식 관련 미디어, 품평회 등에서 바덴 와인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매 빈티지마다 높은 점수를 받는 피노 누아는 꼭 맛보길 권한다. 시음 및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비노테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와인 테이스팅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언덕길 따라 하이킹, 강물 따라 바이킹

지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프라이부르크는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도시다. 자연을 탐험하는 것은 프라이부르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구시가에서 북동쪽으로 한 발짝만 벗어나면 프라이부르크시립공원이 있다. 널따란 잔디밭부터 250종류의 장미가 한데 모인 장미 정원, 작은 연못과 카페, 이를 고루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까지 정성 들여 꾸민 공원이다. 여기서 '프라이부르크의 지붕'이라 불리는 솔로스베르크로 자연스레 하이킹을 떠날 수 있다. 정상인 카노넨





- 1_ 프라이부르크에서 20km 정도 가면 포도밭이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다.
Visitors can enjoy views of vineyards just 20km from Freiburg.
- 2_ 따뜻한 햇살 아래서 포도가 익어가는 모습
Grapes ripen in the warm sunlight, in Germany's Baden region.
- 3_ 프라이부르크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와인, 특히 피노 누아가 유명하다.
Freiburg is famous for various types of wine, especially pinot noir.



that's grilled, folded in half or left as is, placed in a baguette and eaten with mustard. The dish can be found at seven stands throughout the market.

Restaurants, bars and cafés line the alleys of the traditional indoor market Markthalle and the lilac-heavy Konvikt Street. As you walk the streets of Freiburg, you can drink to your heart's content and eat dishes like *flammkuchen* (also known as German pizza); the best-selling Black Forest ham; fried or smoked trout dishes; and white asparagus, which grows until June.

The Home of Wine

Freiburg is also famous for its wine. It is the largest wine producing city in Germany, and even the universities here have wineries. When you think of German wine, you may think of white wine, especially Riesling, but the wine of Germany's warmest city is a little different.

Freiburg boasts soft and fragrant white wines such as Scheurebe, Gewürztraminer and Müller-Thurgau, not to mention deep, fruity red wines such as pinot noir and Dornfelder.

The most famous wine producing areas, Tuniberg and Kaiserstuhl, are just 15 to 20km from the city center. Freiburg accounts for one-third of the total wine production in the Baden region, with around 100 wineries. The city is recognized as a world-class wine producer thanks largely to the winery Weingut Dr. Heger. You can take in the incredible scenery for yourself on your way there. The dazzling sun shines on hills created ages ago by a volcano, and the steep vineyards stretch far into the distance. Weingut Dr. Heger, which has the best vineyards in the Kaiserstuhl range of hills, has increased Baden's profile in numerous wine and gourmet food exhibitions and throughout the world. Its pinot noir scores particularly high for each vintage. Tastings can be arranged through the winery's official website.

Hiking Up the Hill, Biking Along the River

It's clear from looking at a map that Freiburg is a city surrounded by a huge forest. Don't miss the chance to explore the city's natural landscape when you visit. Just a step

플라츠까지 각각 케이블카와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을 가능할 수 있는 웅장한 나무, 깃가를 간질이는 풀벌레 소리,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은은히 퍼지는 꽃 향기 등 자연의 내밀한 속내를 살펴보고 싶다면 등산로를 선택한다. 땀을 부리며 느긋이 걸어도 30분. 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은 이른 아침에 찾아도 좋지만 가능하면 하루의 여정을 마치기 직전 해 질 녘을 추천한다. 주황색에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물드는 저녁 하늘, 그 아래 하나둘 불빛을 반짝이는 유서 깊은 구시가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숲에 생명을 주는 것은 물이다. 드라이잠은 프라이부르크를 가로지르는 29km 길이의 강이다.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더위를 피하고 피크닉을 즐긴다. 이곳은 자전거 여행의 묘미를 만끽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중앙역 옆에 위치한 자전거 정류장에서 자전거를 빌려 서쪽 혹은 동쪽으로 달려보자. 자전거 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면 쿵쿵대는 심장과 함께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동네, 보방

독일은 물론 세계의 환경 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거리에 위치한 보방은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동네다. 보방은 '지속가능성의 모범 지역', '탄소 중립 마을' 등으로 불린다. 과거 이곳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프랑스군이 주둔하던 지역이었는데 통일 후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변모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를 주도한 것이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었다는 것. '보방시민자치조합'을 결성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인 운동을 이끌어 현재 전 세계 여행자들이 친환경적인 삶을 엿보고자 꼭 들르는 동네로 거듭났다.

38만m² 면적에 인구 5600여 명이 사는 보방을 여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동차 출입이 금지된 마을이니 트램 혹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것. 건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패시브 하우스, 여기에 태양광 설비를 부착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빌딩 '선샵'과 '헬리오트로프',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자체 발전소, 직접 먹거리를 재배하는 커뮤니티 정원 등을 찬찬히 둘러본다. 하룻밤의 여유가 허락된다면 그린 시티 호텔 보방에 머물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봐도 좋다.

☞ 대한항공을 타고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으로 간다. 공항 기차역에서 프라이부르크로 가는 ICE가 매시간 있다.
Fly to Frankfurt Airport with Korean Air. Then take an Intercity Express (ICE) train to Freiburg. There are frequent trains from Frankfurt to Freiburg.



1_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이 한데 어우러진 프라이부르크시립공원의 모습
A view of Freiburg's municipal park, where one can find a variety of flowers and plants.

2_ 태양열 패널이 지붕 위를 덮고 있는 지속가능한 동네, 보방
Solar panels cover the roofs of buildings in the sustainable model district of Vauban.

3_ 프라이부르크에서 자전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Bicycles are the most popular means of transportation in Freiburg.





2

northeast of Old Town is the Freiburg Municipal Park, Stadtgarten Freiburg. This is a carefully cultivated garden featuring a wide lawn, a rose garden boasting 250 kinds of roses, a small pond, a café and a promenade from which to view the park. You can easily hike from this park over to Schlossberg (456m), which is called the “roof of Freiburg.” Here, there are cable cars and hiking trails up to Kanonenplatz, the summit.

Water enriches any forest. Dreisam is a 29km-long river that crosses Freiburg. When summer comes, so do the visitors, who picnic along the shore and go for a swim to escape the summer heat. Dreisam also has a bicycle path. You can rent a bicycle at the bicycle stop next to Central Station and head out eastward or westward on a heart-pounding adventure.

Vauban, a Sustainable Neighborhood

Freiburg is not just known as the environmental capital of Germany — it has also been called the environmental capital of the world. Located about 3km southwest of the Old Town, Vauban is a neighborhood that shows the true face of the city. The area has been called a “model of sustainability” and “a carbon neutral village.”

It is easy to travel to Vauban, which is 41 hectares in size and has a population of 5,600 people. Since cars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area, you will need to get to Vauban by tram or bicycle. A tour through the neighborhood will take you past so-called “passive houses,” which were built using special methods and technologies in order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s well as buildings that actually produce surplus energy through solar panels. Two incredible examples to look out for are the futuristic buildings known as Sunship and Heliotope.

The Vauban neighborhood also has its own power plant that produces renewable energy, and community gardens where residents grow their own food. If you receive permission to spend the night, you can stay at the Green City Hotel Vauban and experience daily life in a sustainable neighborhood. The property is yet another example of why Freiburg, a city nourished and sustained by the sun, remains such an enviable place to live.



검은 숲의 산 중 하나인
샤우인슬란트의 모습. 1930년에
개통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

Travelers can reach the top
of Schauinsland, one of the
mountains in the Black Forest,
by taking a cable car tha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1930.



당신이 놓치면 안 될 것들 DON'T MISS

프라이부르크대학교 프라이부르크에 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의 10%가 대학생이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대학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대학교 광장을 비롯해 구시가 곳곳에서 대학 건물들을 찾을 수 있다.

검은 숲 독일인이 가장 사랑하는 숲이자 유럽인에게도 인기 높은 휴양지다. 무려 6000km²에 달하는 크기로, 검은 숲의 다양한 면모를 한데서 즐기고 싶다면 고원지대인 호흐슈바르츠발트를 주목하자.

호흐슈바르츠발트 카드 검은 숲, 그중에서도 고원지대인 호흐슈바르츠발트에 2박 이상 머무르면 지역 내 박물관, 전시회, 가이드 투어, 액티비티 등을 무료 및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를 발급해준다.

샤우인슬란트 검은 숲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인 샤우인슬란트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버스 및 트램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1930년에 개통한 케이블카인 샤우인슬란트반을 타고 발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1284m의 정상으로 향한다.

콜마르 열차로 약 1시간 30분을 달려 “구텐 타크” 대신 “봉주르”를 외치는 프랑스를 만날 수 있다니! 독일 국경과 맞닿은 프랑스 알자스 지방엔 예쁜 도시가 많은데 그중 콜마르가 으뜸으로 꼽힌다. 알록달록한 꽃으로 장식한 16세기 목조 가옥, 프라이부르크보다 화려한 ‘프티 베네치아’(수로), 독일과 닮았으면서도 “역시 프랑스!”를 외치게 하는 음식이 여행자를 반긴다.

University of Freiburg A major source of Freiburg's youthful energy is the University of Freiburg. The oldest university in Europe, its building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Old Town.

The Black Forest The Black Forest is beloved by Germans and is a popular vacation spot for other Europeans. With a total area of 6000km², it's hard to know where to start. You may want to focus on the highlands of Hochschwarzwald.

Hochschwarzwald Card If you stay more than two nights in the Black Forest, pick up this digital card, which grants you entry to museums and spots on guided tours in the region for free or for a discounted rate.

Schauinsland Schauinsland, the third highest mountain in the Black Forest, can easily be reached from Freiburg by bus or tram. The cable car, the Schauinslandbahn, opened in 1930 and takes you all the way up to the summit, 1,284m above sea level.

Colmar There are many pretty cities in Alsace, France, which borders Germany, and Colmar is considered the best of the bunch. The area is filled with wooden 16th-century houses decorated with colorful flowers. This “little Venice,” which is more colorful than Freiburg, has food that resembles German cuisine but that travelers never doubt is French.

프라이부르크 여행 팁 TIPS FOR TRAVELING IN FREIBURG

-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부터 9월 사이로, 평균기온 11~21°C 사이의 쾌적한 날씨를 보인다.
- 독일 연방정부가 6월 1일부터 3개월간 대중교통을 월 9유로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한다. 이 티켓으로 독일 전역 지하철, 버스, 트램, 단거리 지역 열차를 모두 탈 수 있다.
- 프레로는 프라이부르크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도시 전역에 위치한 74개 역에서 530대의 자전거를 자유롭게 대여, 이용할 수 있다. 넥스트바이크 앱이나 VAG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 The best time to visit Freiburg is between June and September. The weather during this period is pleasant, averaging between 11 and 21°C.
-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offering public transportation passes for about \$10 per month for three months, beginning June 1.
- Frelo is a bicycle sharing system operated by the Freiburg Transportation Authority. Throughout the city, 530 bicycles are available for rent at 74 stations. You can use Frelo by downloading the nextbike app or the VAG mobile app.